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의논술 문제(인문·사회계열)

제시문 <가>

소크라테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네. 이집트 나우크라티스 지방에 테우트라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숫자와 계산법, 기하학, 천문학은 물론이고, 장기와 주사위 놀이, 게다가 문자까지 발명했다고 하네. 어느 날 테우트는 이집트의 왕인 타무스를 찾아가 자신이 만든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기술들을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네. 왕은 그 기술 하나하나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물었고, 테우트는 상세히 설명했지. 그런데 대화가 문자에 이르자, 테우트가 이렇게 말했다네. “왕이여, 이 배움은 이집트 사람들을 더욱 지혜롭게 하고 기억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억과 지혜의 묘약으로 발명된 것이니까요.” 그러자 타무스가 이렇게 대답했네. “기술이 뛰어난 테우트여. 그대는 문자의 아버지로서 그것에 대해 선의를 품고 있기에 그렇게 말하겠지만, 내 생각은 정반대요. 왜냐하면 문자는 그것을 배운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에 무관심하게 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망각을 낳아, 그들은 글에 대한 믿음 탓에 바깥에 있는 흔적에 의존할 뿐 스스로 기억해 내려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니 당신이 발명한 것은 기억의 묘약이 아니라 상기의 묘약이고, 그대가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지혜의 겉모양이지 참모습이 아니라요. 그들은 그대 덕분에 많은 것을 듣게 되고, 자신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대부분 그들은 무지하고 누군가를 상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그들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겉보기에 지혜로운 자일뿐이요. 그러니 기술을 문자에 담아 남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문자로부터 무언가 명확하고 확실함이 생겨나리라는 생각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세. 그는 글로 쓰인 말들이 이미 앎을 가진 사람에게 상기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네.

파이드로스: 지당한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 글쓰기에는 뭔가 이런 기이한 점이 있으니, 사실 그것은 그림 그리기와 똑같네. 그려진 것들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보이지만, 자네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무겁게 침묵한다네. 글도 똑같다네. 자네에게는 그것들이 마치 무언가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글에서 무언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면 그것은 언제나 한 가지의 같은 것만을 가리키지. 일단 글로 쓰이고 나면, 모든 말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주변과 그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사람들 주변을 똑같이 맴돌면서, 말을 걸어야 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내지 못하네. 참된 인식과 함께, 배우는 자의 영혼 속에 쓰인 말은 자신을 지킬 힘이 있고, 상대해서 말을 해야 할 사람들과 침묵해야 할 사람들을 가려낼 줄 안다네.

파이드로스: 당신은 앎이 있는 자의 말을 일컬어 살아 있고 영혼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글로 쓰인 말은 그것의 영상(映像)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겁니다.

제시문 <나>

By contrast with natural, oral speech, writing is completely artificial. There is no way to write ‘naturally.’ Oral speech is fully natural to human beings in the sense that every human being in every culture who is not physiologically* or psychologically disabled learns to talk. To say writing is artificial is not to condemn it but to praise it. Like other artificial creations and indeed more than any other, it is truly invaluable and indeed essential for the realization of fuller, interior, human potentials. Technologies are not mere exterior aids but also interior transformations of consciousness, and never more than when they affect the word. Writing

heightens consciousness and it also provides for consciousness as nothing else does. Oral cultures indeed produce powerful and beautiful verbal performances of high artistic and human worth. Nevertheless, without writing, human consciousness cannot achieve its fuller potentials, cannot produce other beautiful and powerful creations. In this sense, orality needs to produce and is destined to produce writing. Literacy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not only of science but also of history, philosophy, explanatory understanding of literature and of any art, and indeed for the explanation of language (including oral speech) itself. There is hardly an oral culture left in the world today that is not somehow aware of the vast complex of powers forever inaccessible without literacy.

Technologies are artificial, but — paradox again — artificiality is natural to human beings. Technology, properly interiorized, does not degrade human life but on the contrary enhances it. The use of a technology can enrich the human mind, enlarge the human spirit, and intensify its interior life. Writing is an even more deeply interiorized technology than instrumental musical performance is. With telephone, radio, television, and various kinds of digital media, electronic technology has brought us into the age of 'secondary orality,' by contrast with primary orality, which refers to thought and its verbal expression totally untouched by any knowledge developed through writing or print. But secondary orality is essentially a more deliberate and self-conscious orality, based permanently on the use of writing and print. Secondary orality is both remarkably like and remarkably unlike primary orality. Like primary orality, secondary orality has generated a strong group sense, for listening to spoken words forms hearers into a group, a true audience, just as reading written or printed texts turns individuals in on themselves. But secondary orality generates a sense for groups immeasurably larger than those of primary oral culture as is indicated by McLuhan's 'global village.' Moreover, before writing, oral folk were group-minded because no possible alternative had presented itself. In our age of secondary orality, we are group-minded self-consciously and programmatically. The contrast between oratory in the past and in today's world well highlights the contrast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orality. Radio, television, and social media have brought major political figures as public speakers to a larger public than was ever possible before modern electronic developments. Thus in a sense orality has come into its own more than ever before. But it is not the old orality. The old style oratory** coming from primary orality is gone forever.

* physiologically: an adverbial form of physiology, meaning a branch of biology that deals with the functions and activities of life or of living matter (such as organs, tissues, or cells) and of the physical and chemical phenomena involved

** oratory: the art of speaking in public eloquently or effectively

제시문 <다>

글쓰기와 글 읽기는 사치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여가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9세기의 감옥 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었을까? 감옥은 반체제 인사들의 또 다른 대학이었으며, 최상의 도덕적 자각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였다. 서구 자본주의와 동구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적 항거의 실험실은 독재 체제 아래의 강제수용소와 포로수용소였다. 1840년부터 1930년까지 유럽의 감옥에 수감되었던 이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유명한 사회주의자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어디에서나 쫓기는 신세였던 예전의 사회주의는 국경을 넘는 일에 능숙하게 되었고, 따라서 유럽 문화가 낳은 고유한 산물로서 등장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이 유럽 대륙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음으로써 서신 교환이 촉진되었고, 따라서 지식인들의 창조성이 꽃필 수 있었다. 그들의 몸은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서로 더 가까이 있었다. 확실히 사회주의적 글쓰기는 서간문학에 빛을 지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론적 작업의 절반을 편지로 수행했으며, 사실상 그들의 모든 정치적 활동은 우체통을 거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오늘날 각종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사교적으로 변해가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지해지고 있다. 대화는 늘어났는데, 논쟁은 줄어든 것이다. 전화는 서신의 기술을 파괴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고를 합리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지니고 있었던 권위는 손상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전화 수화기를 붙들고 복잡한 원리와 주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는 수다를 떨기 위해 전화를 사용한다. 사소한 말들의 홍수 속에서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거창한 논의는 이제 개인의 내밀한 장신구 비슷한 것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텔레비전을 봐야만 하고, 따라서 집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는 말하자면 ‘자발적인 자택 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집은 곧 그의 성이다”라는 속담 아래 깔린 의미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만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고립된 개인들에게 일방적인 말을 전달할 따름이다. 또 휴대전화는 끝없는 일대일 관계일 뿐이며, 우리의 머리에서 보편적인 것을 몰아낸다. 전자우편(e-mail)이 서신 교환의 장점을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우편’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는 편지보다 대화에 가깝기 때문이다. 간단한 메시지를 빠르게 주고받는다든 특성 때문에 전자우편은 글이라기보다는 말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짧고 일시적이고 즉흥적이며 대개 감정적이다. 이러한 구술적 성격의 글쓰기에는 일관된 논리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전자우편은 사람들이 함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유를 정립해나가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텔레비전, 휴대전화, 인터넷 역시 세계화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 간 연대의 유기적인 성격을 감소시킴으로써 세계시민주의에는 해로운 것이다. 그것들은 만남과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적 관계의 영역을 확장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들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 뿐이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세계화하면서도 오히려 특수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시문 <라>

제2의 구술성(secondary orality)과 관련된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공동체 의식의 감소를 가지고 온다는 이론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도시별 디지털 매체 사용량과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디지털 매체 사용량은 전자우편(e-mail)과 협업 소셜미디어(collaborative social media)* 중 하나를 매일 이용하는 도시민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공동체 의식의 점수는 설문조사를 통한 해당 도시 거주자들의 평균으로 측정되었다. 그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100점이다. 이 연구 결과, 조사된 도시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매체 사용량이 3% 증가할 때 공동체 의식 점수가 평균 10점 하락하였고, 이 감소량은 정규분포를 따랐다. 단, 거주자가 500만 이상인 대규모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이 정규분포의 표준편차는 5점이었으며, 아시아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10점이었다.** 서울시는 디지털 매체의 사용 증가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 대책을 위해 서울시가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서울 시민들의 전자우편과 협업 소셜미디어 사용량이 1년 후에 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협업 소셜미디어는 위키피디아, 네이버 지식iN 등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소셜미디어를 의미한다.

** Z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P(|Z| \leq 0.50) = 0.383, P(|Z| \leq 1.00) = 0.6826, P(|Z| \leq 1.65) = 0.90, P(|Z| \leq 1.96) = 0.95$$

$$P(|Z| \leq 2.00) = 0.9544, P(|Z| \leq 2.58) = 0.99, P(|Z| \leq 3) = 0.998$$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00자 내외, 50점)

1-(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1-(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각각의 관점에서 다음의 사례를 평가하시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뉴욕 여성의 삶과 사랑을 그려낸 미국 TV 드라마가 한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는 대만의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서도 매우 환영받았다. 그들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드라마 내용에 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여성에게 정숙함과 자기희생을 기대하는 대만의 문화적 전통은 그 당시 여성 경제력 증가와 그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드라마는 이른바 ‘바람직한 여성’이 되어야 하는 의무와 더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생활양식을 원하는 욕망을 절충하려는 대만 여성들에게 문화적 대안을 제공했으며, 남성 지배적 세계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투쟁에 영감을 제공했다. 다른 한편, 여성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감각적 세계를 즐기며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도 드러냈다. 한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 드라마의 교훈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 2. 제시문 <라>를 근거로 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00자 내외, 50점)

2-(1) 제시문 <라>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서울시를 거주자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를 아시아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가 서울시 대책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2-(2) 제시문 <라>의 연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표 2], [표 3] 각각을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표 안의 숫자는 해당 도시의 수를 의미한다.)

[표 1]

| 이메일 사용량 | 공동체 의식 | | |
|---------|-------------|-------------|------------|
| | 낮다 | 높다 | 합계 |
| 많다 | 432 (54.1%) | 367 (45.9%) | 799 (100%) |
| 적다 | 482 (63.3%) | 279 (36.7%) | 761 (100%) |

[표 2]

| 독서량 | 공동체 의식 | | |
|-----|-------------|-------------|------------|
| | 낮다 | 높다 | 합계 |
| 많다 | 428 (49.7%) | 434 (50.3%) | 862 (100%) |
| 적다 | 486 (69.6%) | 212 (30.4%) | 698 (100%) |

[표 3]

| 협업 미디어* 사용량 | 공동체 의식 | | |
|-------------|-------------|-------------|------------|
| | 낮다 | 높다 | 합계 |
| 많다 | 341 (51.0%) | 327 (49.0%) | 668 (100%) |
| 적다 | 573 (64.2%) | 319 (35.8%) | 892 (100%) |

* 협업 미디어는 제시문 <라>에서 설명한 협업 소셜미디어를 의미한다.